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 병행... 매출 8.4배나 '깡충'

영암, '영농형 태양광 실증재배' 첫 결과 발표

벼 수확 소폭↓·발전 매출 ↑...“농가소득 증대”

논에 벼농사만 짓는 것보다 벼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8배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

영암군은 최근 '영농형 태양광 실증재배' 첫해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실증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논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 위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 다목적 활용,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복합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직영 논 1000㎡ 면적에 45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올해 6월 11일 이앙을 시작으로 벼 재배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실증재배에 나섰고, 최근 수확까지 마쳤다.

군에 따르면 실증재배 결과 태양광 설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벼 수확량은 21% 줄었지만, 1년 태양광발전 매출 추정액이 이를 상회하고도 약 872만원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 논 벼이앙작업 모습.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벼농사만 지은 같은 면적의 대조 논에서는 총 668kg, 실증 논에서는 이보다 143kg 적은 총 525kg 벼가 수확됐는데, 올해 농협 벼

수매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는 각각 117만원, 92만원이고, 그 차액은 25만원 정도다.

대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증 논에서 생산된 전기는 4만8499kWh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 185원/kWh를 여기에 적용하면 예상 발전 매출액은 897만원 선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 논에서의 연간 벼와 전기 총매출은 989만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벼농사 매출의 8.4배가 넘는다.

군은 이런 실증 결과가 태양광발전 설비·설치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나아가 현재 정책과 시세를 고려해 태양광발전 설비·설치 비용까지 계산에 넣을 경우,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 후 7년가량이 지나면 농가 소득에 의미 있는 변화

가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전기 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관련 정책 뒷받침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군은 앞으로 2년간 실증재배를 이어가며 벼 수확량 안정성 확보, 재배기술·농작업 여건 개선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

이정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형 태양광 첫 실증재배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얻었다”며 “이어지는 실증재배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영암군민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합리적 모델 제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무안 고구마, '할리스 커피' 라떼로 재탄생

군·착한농부·신광식품 협력...지역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무안군융복합센터에서 생산된 군고구마페이스트가 활용된 고구마라떼 신제품이 19일 전국 할리스커피 매장에서 출시된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올해 초 무안군융복합센터에서 생산한 군고구마페이스트 10t을 경남 김해시의 식품기업



을 하고 있으며, 현재 IQF(개별급속냉동) 제품과 고구마·단호박 페이스트 등을 가공·생산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융복합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이 실제 판로와 연결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

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가공유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영민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 대표는 “무안 고구마가 전국 할리스커피 매장에서 판매되는 고구마라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군과 협력해 고품질 군고구마 페이스트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은 물론, 다른 대량 수요처 등에도 고품질 무안 고구마페이스트를 가공·유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향후 군고구마페이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 및 디저트류 개발을 추진해 무안고구마의 전국 브랜드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군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군은 최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갖고, 김장담기 행사와 함께 청정 해남배추로 담은 명품 김장김치를 경기도 안양시에 전달했다.

‘김장대전 돌입’ 해남, 수도권에 해남배추 홍보

안양시 김치담기 행사·올가홀푸드와 유통확대 협약 체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해남군이 명품 해남배추의 수도권 홍보에 나서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갖고, 김장담기 행사와 함께 청정 해남배추로 담은 명품 김장김치를 경기도 안양시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최

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원들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은 김장철을 맞아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남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치의 세계화와 김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나눔 행사는 해남군과 안양시의 우

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류사업으로, 두 지자체는 앞으로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복지 나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은 친환경·유기농 전문 유통기업인 올가홀푸드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올가홀푸드에서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매 확대, 공동마케팅 추진, 신규 유통시장 개척 등을 추진, 지속 가능한 유통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강진,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

내달 11일까지 신청자 모집

강진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을 위해 12월 11일까지 2026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90만~1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농지구입, 축산신축 등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원 융자 신청 가능, 5년 거치 20년 상환, 1.5%)과 기술·컨설팅·교육,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매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선정대상자는 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과정 이수, 재해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하며,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원받은 기간만큼 전업적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30-3642)에서 상담·안내 받을 수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